

너의 족쇄를 풀어라!
너의 자연스러움을 즐겨라!
벌건 대낮 무엄한 축제!



몸 짓

'99. 12. 1(水) ~ 3(金)

주 최 : 연세대학교 성문화연구회 몸

안녕하십니까? 성문화 연구회 “몸”입니다. 우선,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들어보지 않은 채 저희의 행사에 대해 언론에 먼저 알린 것을 정중히 사과드리고, 학교측의 행사진행 허가와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깜짝쇼나 가쉽거리의 제공이 아니며, 연세대의 대외적 이미지인 리버럴리즘을 빙자하여 장난을 칠 생각도 없습니다. 피지컬 퍼포먼스는 엄연한 예술행위이며,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바 있는 예술행위가 학교가 표방하는 기독교주의에 어긋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라는 공간은 사회 어느 곳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외에서 온 사람이나 중·고생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도 고려하고 있으며, 신문지상에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었지만 행사의 일정을 바꿀 용의가 있으며, 행사의 진행을 허락해 주신다면 변경된 행사일정을 학교측에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학교측의 허가 없이 행사를 외부에 알린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희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 단체의 행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단체의 약력과 행사 진행계획 등 저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 래

1. 단체소개
2. 기획의도
3. 행사 조직도
4. 학교 지원 요청사항

※ 별 첨 - “21세기 성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각” 강연회 자료집

성문화 연구회 몸

▲ 모임소개

성문화 연구회 몸은 '자유로울 수 있는 몸'이라는 기치 아래, 대학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현상적 접근을 통해 오늘날의 대학인들에게 있어서 성에 대한 기존의 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해보고, 진보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해보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지난 4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성에 대한 갖가지 이슈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성이라는 화두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의 기획을 통해 그간의 담론들이 양지에서 논쟁화 될 수 있는 실험적인 장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 단체약력

1999년 4월 모임 발족.

5월 세미나 '대학사회의 성문화 까발리기'

6월 세미나 'O양 비디오, 개인의 성과 사회의 성'

8월 워크숍 개최 '영화 속의 성과 사회윤리'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

9월 세미나 '거짓말 논란, 누가 포르노를 규정하는가'

10월 세미나 '자유부인 1999, 서갑숙 논란'

11월 "21세기 성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각" 강연회 개최

-성문화 연구회 몸에서는 성에 대한 다양하고 자유로운 시각의 공존을 인정하되, 이데올로기적 억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성의 순수성과 육체적 권리 행사의 자유를 신봉하며 성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뢰한다.

2 퍼포먼스 기획의도

우리는 거대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무비판적으로 습득된 이러한 거대 담론들, 특히 세기말의 화두인 성을 주제로 하는 담론들은 여러 가지 통로로 억압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자유주의의 상징인 듯 보이는 대학공간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에 반기를 든다. 우리는 대학공간 내에서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를 시험해 보고 싶으며, 성에 대한 다양하고 자유로운 담론을 불러 일으키고 싶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상업적으로 비칠 수도 있으며 그저 하나의 가쉽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의도가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러한 왜곡된 시각들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적 테러, 혹은 게릴라라는 방법을 채택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visual shock을 체험함으로써 기존에 억압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성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되짚어 보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고자 한다.

우리 '성문화 연구회 몸'은 아직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며 단체의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9월의 일이다. (학교에 정식 단체로 등록하려면 3년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 대안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자 한다.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으며 행사 진행 전에 오픈할 예정이다.(http://mom_yonsei.tripod.com '성문화 연구회 몸') 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 행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의도를 명백히 밝히고 또한 우리의 의도를 외부에 알리며 사이버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담론들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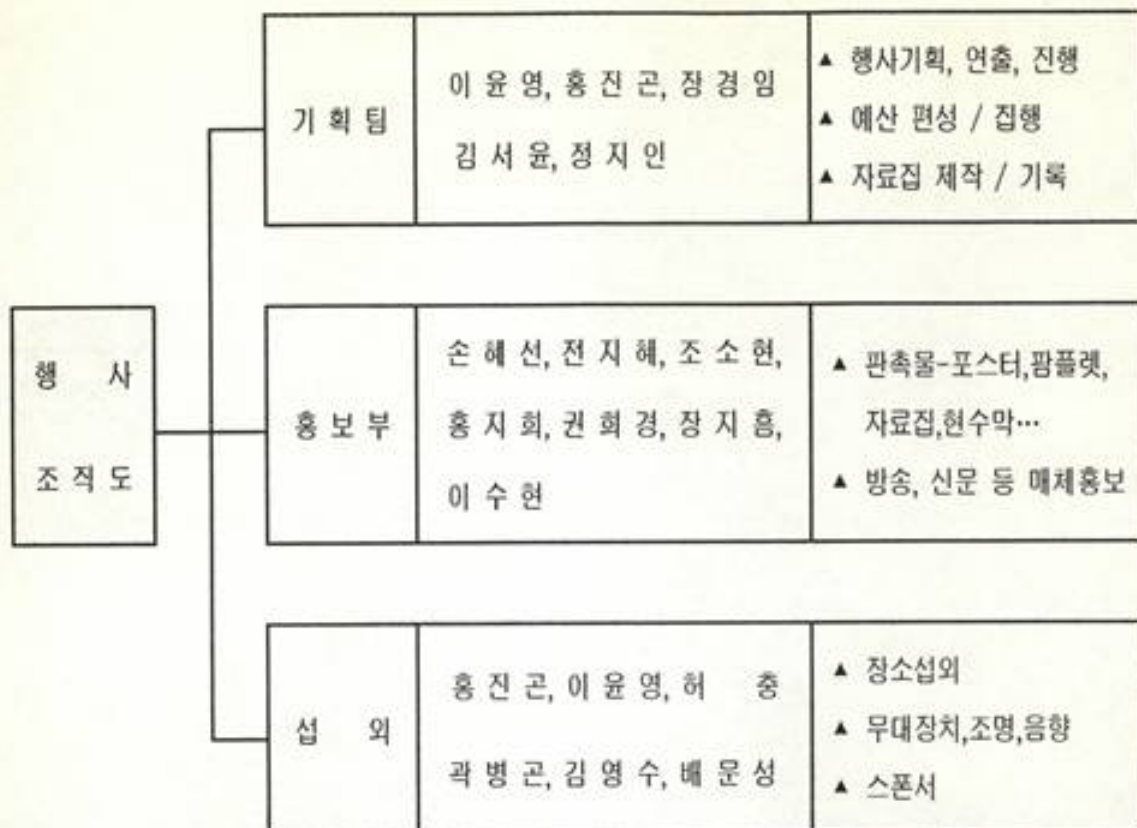
최초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포르노필름 상영과 포르노 사진 전시에 관한 안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여성단체에 접촉을 시도한 결과 여성성의 왜곡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내부로부터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포르노는 명백한 불법이고, 따라서 이 안은

기획회의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성문화 연구회 “몸”의 포르노에 대한 공식 입장은 Anti Anti 포르노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행사를 통해 이야기를 펴 나갈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다.) 석간 문화일보 11월 24일자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며, 이에 우리는 신문사측에 수정을 요구했고, (서울 및 수도권에 배포된 문화일보 신문에서는 포르노 비디오 상영과 포르노 사진 전시의 내용이 나갔지만 오후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정정되었다.) 다른 여러 신문사와 컨택 시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Actress 유동숙”씨에 의해 펼쳐질 피지컬 퍼포먼스는 일본에서 바리데기 설화의 모티브로 피지컬 퍼포먼스가 개최된 바 있고 이는 3주전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다. (내년에는 한일 문화교류 차원에서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올 봄 어느 지방대(어느 학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음)에서 그 대학 총장의 초청으로 피지컬 퍼포먼스를 벌여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추후 공연 또한 섭외 되었으나 한국미술모델 협회 측에서 지방 공연의 어려움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문화일보 11월 24일자에서는 누드쇼 내지 누드 퍼포먼스라 보도되었고 이는 여론의 관심을 끌려는 언론의 의도에 의해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겼으며, 이에 우리 성문화연구회 ‘몸’에서는 수정 및 정정을 요구하였다. 24일 오후 현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연합뉴스, 대한매일, 경향신문에서 보도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기사작성시 누드쇼 내지 누드 퍼포먼스가 아니라 피지컬 퍼포먼스로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나름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획의 장을 제공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자신의 성의식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행사의 의도이다.

3 행사 조직도



※ 위의 조직도는 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임.

4 학교 지원 요청사항

- 행사경비 일부 (예상경비 ₩ 500,000 충당을 위해 스폰서를 구하고 있으나 행사성격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연구회 회원들 자비로 충당 예정)
- 행사진행시 야외장소의 사용허가 (학생회관 앞으로 보도되었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른 장소를 물색 중)
- 앰프와 전기시설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저희 단체를 외부에 알리는 차원에서 지난 19일(금)에 있었던 강연회의 자료입니다.

<21세기 성문화> 여성우위 · 탐미적 섹스 · 모계사회

'21세기의 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이전과 달라진 것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성 주도의 성'이 '여성 주도의 성'으로 바뀌는 것이 될 것 같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양(陽)'이 지배하던 세계가 '음(陰)'이 지배하는 세계로 바뀌는 것이다.

여권 신장과 피임약의 발달 20세기는 '성의 혁명'이 일어난 시대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구용 피임약'의 개발이다. 1960년대 이후 여권의 신장과 여성용 피임약의 보급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임신과 육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쾌락으로서의 성'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르게 되었다.

여자 앞에서 작아지는 남성들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성적 쾌락 추구가 활발해지자 남성들의 성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여성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오르가슴의 충족'을 감당해 내기엔 남성들의 정력이 형편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변태성욕'으로 치부되는 사디즘 · 마조히즘 · 페티시즘 같은 것들에 빠지는 남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성교행위에 대한 남성들의 공포심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여성중심 사회의 도래 삼입성교를 기피하는 '변태성욕자'들이 확산되자 변태성욕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은 삼입성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츰 남성들을 앞잡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남성들은 더 이상 성적으로 군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체제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현재의 남성중심사회는 여성중심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실추되는 남성의 권위 인류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바뀐 것이 농경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류는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을 버려가고 있다. 농경생활 양식에 기초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성문화는 여성의 성을 억압했다. 다시금 원시적 이동생활로 돌아갈 것이 분명한 미래의 성문화는, 대다수의 여성들을 집박으로 '몰아낼' 것이 틀림없다.

男女 평등으로 가는 과도기 모계사회로 돌아갈 경우 여성들 역시 남성들처럼 변태성욕에 빠져드는 경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적 오르가슴 추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여성들의 '삼입성교 욕구'가 한결 수그러들 것이 틀림없다. 여성들 역시 비생식적 섹스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귀여운 남성'이 사랑받는다 인간의 성이 진화된 과정을 보면 '생식적 성'에서 '유희의 성'으로 옮겨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성은 '성기적(性器的) 성'에서 '전신적(全身的) 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여성은 남성보다 미감(美感)이 훨씬 발달해 있다. 때문에 요즘 여성들이 썩썩한 남자보다는 화사하게 꾸민 가냘픈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프리섹스 · 모계사회 · 신세계 먼 미래에는 시험관 아기가 보편화되고 사회적 복지 장치가 개발되어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아이의 공동양육은 인류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유토피아상이었다. 숙련된 보모에 의해 키워진 아이가 곧바로 어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면, 즉 성적 성숙이 무시되는 미성년자의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동아』 99년 11월호에서 발췌)

연세대학교 성문화 연구회 물에서는 영화 '거짓말'의 등급심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쟁과 서갑숙씨의 출판물과 관련한 논란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에 대한 이슈들이 연세대학이라는 한정된 대학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담론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 시점의 성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연의 주제는 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의 성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각이고 강연자는 마광수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들으시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11월 19일 금요일 6시

장소: 연세대학교 인문관 02호

주최: 연세대학교 성문화 연구회 물

최근 학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기획한 성문화 연구회 몸의 회원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 문제 제기된 바 있었던 행사의 개최의도와 당위성 등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지면상으로나마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성문화 연구회 몸은 자유로운 몸이라는 기치 아래, 진보적 차원의 성담론 모색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한 학회입니다. 우리는 그간 이슈화되었던 몇몇의 성과 관련된 논란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성담론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인식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판단의 기회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족쇄처럼 우리의 사고를 움켜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족쇄로부터 벗어나 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의 틀로부터의 자유를 모색함과 동시에 성에 대한 갖가지 담론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로 그러한 시도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대학이라는 학문적 공간에서 굳이 벌여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이 진보적인 마인드가 가장 활발히 숨쉬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학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학사회가 가지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인식이 전제된 담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결과, 대학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를 성에 대한 담론의 한계를 짚어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기존 사회의 인식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성담론의 분출을 가능케 할 수단으로써 피지컬 퍼포먼스라는 생소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피지컬 퍼포먼스는 이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연되는 장소가 야외이며 공연자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나체쇼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여과없이 표현한 나체쇼 혹은 누드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선정성이야말로 우리 연구회가 기획한 행사의 찬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피지컬 퍼포먼스를 시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행사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의식 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터부시되어 왔습니다. 성을 하나의 금기로써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몸을 스스로 터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자유로운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한채 이데올로기적 측면만은 강조하여 그것을 통해서만 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억압임과 동시에 인간의 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아닐 것입니다. 같은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서의 바이올린 공연은 인정하면서도 야외의 피지컬 퍼포먼스를 배척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성적 억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항거하기 위해, 또한 성에 대해 가지는 사회의 이중성에 항거하기 위해 어두운 실내가 아닌 태양 아래서의 퍼포먼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여성이 누드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퍼포머 유동숙씨가 피지컬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취지이자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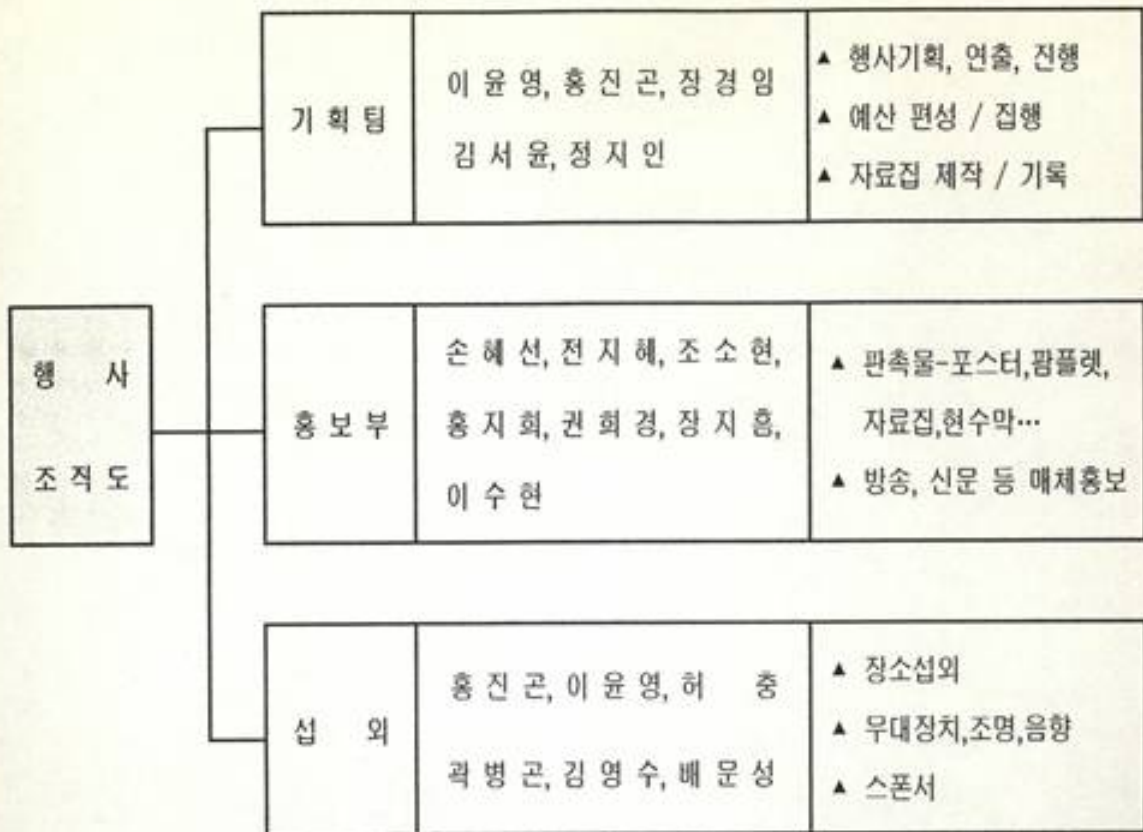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포르노 사진 전시 및 영화 상영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그러한 안전이 나왔던 것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성단체들과의 접촉을 통해 포르노에 나타난 여성성의 왜곡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잘못된 의도의 전달에 대한 위험부담과 포르노의 위법성 등을 고려한 결과 이 안전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의 책임은 불확실한 사실을 보

도한 언론에 있다고 보여지며 언론의 선정성을 간파한 우리의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문지상에 보도된 기사만을 보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아직 개죄되지도 않은 행사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 취지를 의심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주어지고 있는 관심만큼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보이지 않던 곳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던 성담론이 밝은 곳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성문화 연구회 몸 장경임 씀

3 행사 조직도



※ 위의 조직도는 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임.

4 학교 지원 요청사항

- 행사경비 일부 (예상경비 W 500,000 충당을 위해 스폰서를 구하고 있으나
행사성격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연구회 회원들 자비로 충당 예정)
- 행사진행시 야외장소의 사용허가 (학생회관 앞으로 보도되었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른 장소를 모색 중)
- 앰프와 전기시설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저희 단체를 외부에 알리는 차원에서 지난 19일(금)에 있었던 강연회의 자료입니다.

<21세기 성문화> 여성우위 · 탐미적 섹스 · 모계사회

'21세기의 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이전과 달라진 것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성 주도의 성'이 '여성 주도의 성'으로 바뀌는 것이 될 것 같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양(陽)'이 지배하던 세계가 '음(陰)'이 지배하는 세계로 바뀌는 것이다.

여권 신장과 피임약의 발달 20세기는 '성의 혁명'이 일어난 시대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구용 피임약'의 개발이다. 1960년대 이후 여권의 신장과 여성용 피임약의 보급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임신과 육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쾌락으로서의 성'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르게 되었다.

여자 앞에서 작아지는 남성들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성적 쾌락 추구가 활발해지자 남성들의 성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여성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오르가슴의 충족'을 감당해 내기엔 남성들의 정력이 형편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변태성욕'으로 치부되는 사디즘 · 마조히즘 · 페티시즘 같은 것들에 빠지는 남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성교행위에 대한 남성들의 공포심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여성중심 사회의 도래 삽입성교를 기피하는 '변태성욕자'들이 확산되자 변태성욕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은 삽입성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츰 남성들을 앞잡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남성들은 더 이상 성적으로 군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체제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현재의 남성중심사회는 여성중심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실추되는 남성의 권위 인류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바뀐 것이 농경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류는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을 버려가고 있다. 농경생활 양식에 기초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성문화는 여성의 성을 억압했다. 다시금 원시적 이동생활로 돌아갈 것이 분명한 미래의 성문화는, 대다수의 여성들을 집박으로 '몰아낼' 것이 틀림없다.

男女 평등으로 가는 과도기 모계사회로 돌아갈 경우 여성들 역시 남성들처럼 변태성욕에 빠져드는 경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적 오르가슴 추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여성들의 '삽입성교 욕구'가 한결 수그러들 것이 틀림없다. 여성들 역시 비생식적 섹스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귀여운 남성'이 사랑받는다 인간의 성이 진화된 과정을 보면 '생식적 성'에서 '유희의 성'으로 옮겨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성은 '성기적(性器的) 성'에서 '전신적(全身的) 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여성은 남성보다 미감(美感)이 훨씬 발달해 있다. 때문에 요즘 여성들이 섹시한 남자보다는 화사하게 꾸민 가냘픈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프리섹스 · 모계사회 · 신세계 먼 미래에는 시험관 아기가 보편화되고 사회적 복지 장치가 개발되어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아이의 공동양육은 인류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유토피아상이었다. 숙련된 보모에 의해 키워진 아이가 곧바로 어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면, 즉 성적 성숙이 무시되는 미성년자의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동아』 99년 11월호에서 발췌)

연세대학교 성문화 연구회 몸에서는 영화 '거짓말'의 등급심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쟁과 서갑숙씨의 출판물과 관련한 논란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에 대한 이슈들이 연세대학이라는 한정된 대학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담론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 시점의 성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연의 주제는 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의 성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각이고 강연자는 마광수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들으시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11월 19일 금요일 6시

장소: 연세대학교 인문관 02호

주최: 연세대학교 성문화 연구회 몸

최근 학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기획한 성문화 연구회 몸의 회원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 문제 제기된 바 있었던 행사의 개최의도와 당위성 등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지면상으로나마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성문화 연구회 몸은 자유로운 몸이라는 기치 아래, 진보적 차원의 성담론 모색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한 학회입니다. 우리는 그간 이슈화되었던 몇몇의 성과 관련된 논란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성담론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인식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판단의 기회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족쇄처럼 우리의 사고를 움죄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족쇄로부터 벗어나 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의 틀로부터의 자유를 모색함과 동시에 성에 대한 갖가지 담론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로 그러한 시도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대학이라는 학문적 공간에서 굳이 벌여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이 진보적인 마인드가 가장 활발히 숨쉬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학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학사회가 가지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인식이 전제된 담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결과, 대학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를 성에 대한 담론의 한계를 짚어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기존 사회의 인식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성담론의 분출을 가능케 할 수단으로써 피지컬 퍼포먼스라는 생소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피지컬 퍼포먼스는 이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연되는 장소가 야외이며 공연자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나체쇼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여과없이 표현한 나체쇼 혹은 누드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선정성이야말로 우리 연구회가 기획한 행사의 찬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피지컬 퍼포먼스를 시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행사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터부시되어 왔습니다. 성을 하나의 금기로써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몸을 스스로 터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자유로운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한채 이데올로기적 측면만은 강조하여 그것을 통해서만 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억압임과 동시에 인간의 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아닐 것입니다. 같은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서의 바이올린 공연은 인정하면서도 야외의 피지컬 퍼포먼스를 배척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성적 억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항거하기 위해, 또한 성에 대해 가지는 사회의 이중성에 항거하기 위해 어두운 실내가 아닌 태양 아래서의 퍼포먼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여성이 누드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퍼포머 유동숙씨가 피지컬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취지이자 바람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포르노 사진 전시 및 영화 상영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그러한 안건이 나왔던 것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성단체들과의 접촉을 통해 포르노에 나타난 여성성의 왜곡에 대해 간파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잘못된 의도의 전달에 대한 위험부담과 포르노의 위법성 등을 고려한 결과 이 안건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의 책임은 불확실한 사실을 보

도한 언론에 있다고 보여지며 언론의 선정성을 간과한 우리의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문지상에 보도된 기사만을 보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행사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 취지를 의심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주어지고 있는 관심만큼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보이지 않던 곳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던 성담론이 밝은 곳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성문화 연구회 몸 장경임 씀